

[14] 9월

초 1일(임자) 맑음. 원수사가 왔다. 공문을 만들어 도원수와 순변사에게 보냈다. 아우 여필(汝弼) 변존서(卞存緒) 조카 뇌()들이 돌아갔다. 우수사, 정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초 2일(계축) 맑음. 장계의 초안을 써서 내려 주었다. 경상 우후 이의득(李義得)과 이여념(李汝恬)들이 보러 왔었다. 어두워 이영남(李英男)이 와서 선병사(* 거이)도 도체찰사(都體察使)에게서 불공한다는 죄목으로 책망을 들었다고 한다. 참 우수한 일이다. 효근(孝謹)의 형편없는 짓은 이미 알던바다.

초 3일(갑인) 아침에 조카 봉()이 들어와서 어머니님이 평안하시다는 소식도 듣고 본영의 사정도 들었다. 장계(狀啓)를 올리려고 초안을 만들었다. 순찰사(* 이정암(李廷)이 공문이 왔는데 군사 일족들에 대하여 일절 징발하지 말라고 하였다. 새로 도임하여 사정을 잘못 알고하는 말이다.

초 4일(을묘) 맑음. 폐단되는 것을 진술하는 장계와 총통 올려보내는 것과 제 만준공초 받은 사연을 올려 보내는 것등 세가지를 봉해 올리는데 이경복(李景福)이 가져왔다. 유정승(* 성홍)과 참판 윤자신(尹自新) 지사 윤우신(尹又新) 도승지 심희수(沈喜壽) 지사(* 이일(李鎰) 안습지(安習之) 윤기헌(尹耆獻)에게 편지를 쓰고 또 전복을 정표로 보냈다. 조카 봉과 윤간(尹侃)이 돌아갔다.

초 5일(병진) 맑음. 식후에 정수사의 배 옆에 다다 배를 대고 종일 그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광양, 흥양, 우후(李夢龜)가 보러 왔다 돌아갔다.

초 6일(정사) 맑음. 새벽에 배 만들 재목 운반해 올일로 열 배를 내어 보냈다. 식후에 우수사 배로 가서 종일토록 이야기하였다. 거기서 원수사의 음흉한 일들을 듣고 또 정담수(鄭聃壽)가 근거없는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꼴을 들으니 우스웠다. 바둑 두고 돌아왔다. 파선된 배의 재목을 여러 배가 끌어 왔다.

초 7일(무오) 맑음. 아침에 재목을 받아 들었다. 방답이 보러 왔다. 순찰사(巡察使 * 이정암(李廷))에게 폐단을 지술하는 공문과 또 군대 편성 개정에 대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종일토록 홀로 앉았으니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했다. 저녁때 탐후선을 고대하건만 들어오지 않았다. 해진 뒤 가슴속이 답답해서 창문을 닫지 않도 잤더니 외풍에 촉상되어 머리가 몹시 아프니 염려스럽다.

초 8일(기미) 맑으나 바람이 요란하였다. 새벽에 송희립(宋希立)들을 당포(唐浦) 산으로 내어 보내어 사슴을 잡아오게 하였다. 우수사와 충청수사가 함께 왔다.

초 9일(경신) 맑음. 식후에 산마루에 올라가 모여서 활 3순을 쏘다. 우수사, 정수사와 여러 장수들을 모였는데 광양은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저녁나절 비가 왔다.

초 10일(신유) 맑음. 공문을 탐후선(探候船)편에 적어 보냈다. 날이 늦게 우수사 배에 이르러 방답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체찰사의 비밀 공문이 들어왔다. 보성(* 김득광)이 왔다고 돌아갔다.

11일(임술) 맑음. 정수사가 술을 차려 가지고 왔다. 우수사도 오고 낙안, 방답도 와서 함께 마셨다. 흥양원(* 배흥립)은 말미를 받고 돌아갔다. 서몽남(徐夢男)에게도 말미를 주어 함께 나가게 했다.

12일(계해) 맑음. 식후에 소비포(* 이영남)와 유충신(柳忠信) 김만호(* 인영(仁英))들을 불러서 술을 먹였다. 발포 만호(* 황정록)가 돌아왔다.

13일(갑자) 맑음. 새벽에 종한경(漢京) 돌쇠(玆世) 해돌(年石)과 자모종들이 돌아왔다. 저녁에 종 금이(金伊) 해돌, 돌쇠들은 돌아가고 양정언(梁廷彦)도 함께 돌아갔다. 그러나 저녁 후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으니 어떻게들 갔는지 모르겠다.

14일(을축) 종일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었다. 홀로 뜰 아래 앉았으니 생각이 천만 갈래였다. 순천이 돌아왔다. 쇠로 만든 총통은 전쟁에 가장 긴요한 것이언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 온갖 연구를 거듭하여 조총(鳥銃)을 만들어 내었는데 왜총보다 더 잘되어 명나라 사람들이 진중에 와서 시험으로 놀아 보고 서는 잘 되어 명나라 사람들이 진중에 와서 시험으로 놀아 보고서는 좋다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미 그 묘법을 알았으니 도내(道內)에 같은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기로 순찰사 병사에게 견본을 보내고 또 공문을 돌리도록 했다.

15일(병인) 맑음.

□ 9월 16일부터 12월 그믐까지 빠졌음.

명나라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강화를 주장하며 싸움을 피하려고만 했다. 그래서 갑오년 3월에 명나라 지휘관은 공에게 싸움을 중지하고 돌아가라는 패문까지 보냈다. 우리가 우리땅에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고 항의하던 공의 가슴은 울분으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